

## 자기에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에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황 성 훈<sup>†</sup>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자기에적 성향은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도한 평가와 웅대한 자기상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외현형 자기에)과 속으로 숨는 형(내현형 자기에)으로 나뉜다. 본 연구는 하위 유형에 따라 자기에 성향자의 내적 자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대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자기에성 성격 장애 척도와 내현형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여, 내현형 자기에 집단(24명), 외현형 자기에 집단(23명), 그리고 정상 통제 집단(26명)을 선별하였다. 자기의 내적 구조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에 관한 특성을 분류하는 과제인 ‘자기 측면 검사’를 실시하였다. 외현형 자기에에는 긍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았고, 반면에 내현형 자기에에는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았다. 즉, 외현형은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속성을 다양하게 분화시켜 자기 구조를 조직화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현형 자기에가 겉으로 표방하는 자아상의 웅대함을 반영한다. 반면에 내현형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과 속성을 복잡한 구조로 표상하고 있어서, 자아상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또한 내현형 집단은 외현형 및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서 부정 중심의 자기 구획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자신의 좋음과 나쁨을 분리하되, 나쁨을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표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내현형 집단은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들이 조화롭지 않으며, 질서정연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높은 부정 자기 복잡성과 낮은 긍정 자기 복잡성, 그리고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가 내현형 자기에 집단에게는 내적 부조화와 균열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자기 구조의 진단적 지표에서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자기 복잡성을 정돈하고, 부정 중심의 구획화를 통합적인 구조로 변경시키는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과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에성 성격, 내현형 자기에, 외현형 자기에, 자기 복잡성, 구획화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H00016)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황성훈,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Fax: 02-2290-0601, E-mail: thinkgrey@hanmail.net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본위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발생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의 한 형태인 자기에성 성격 장애의 내적 구조, 즉 자기 표상을 탐색하려 한다. Kernberg(1975)는 ‘웅대하지만 취약한’ 자기라는 개념으로 이들의 내적 세계를 압축하고 있다. 즉, 자기에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취적이고 웅대하며 자존감이 높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충분할 것 같은데도 자기에 성향자들은 모순되게 타인의 관심, 존경, 칭찬을 끊임없이 구한다. 이러한 자기에적 역설(narcissistic paradox)은 웅대성의 기저에 공허함과 취약함이 있음을 말해준다.

Kohut(1971)은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내적 구조를 ‘수직 분리(vertical splitt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Kohut(1971)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유아는 인정과 경탄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아이의 전능성과 웅대성을 양육자가 충분히 공감해주지 않을 때, 막 형성되고 있던 중심적 자기로부터 과시적이고 웅대한 부분이 분리된다. 그래서 현실적 자아에는 낮은 자존감, 부끄러움에 대한 취약성, 건강 염려증 등이 남게 되며, 반면에 분리되어 나온 구조인 거대 자기(grandiose self)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반영과 찬탄을 추구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수직적 분리인데, 이는 결국 자기 평가에 대한 불안정을 가져온다. 즉, 수직 분리는 a) 승인의 욕구가 좌절된 것을 부인하기 위한 웅대성의 표방과 b) 공허하고 낮은 자존감이 교대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기애의 내적 구조에 대한 고전적 이론은 최근에 와서 더 정교화되어, ‘무의식적인 자격 지심’과 ‘의식적인 우월감’의 분리로 정리된다 (Robins, Tracy, & Shaver, 2001).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과 취약성이 내재해 있으나, 이를 우월

감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존감을 보호하려 애쓴 결과가 병리적인 자기애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기에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가치를 높게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음이 발견된다. 자신을 과시하듯 제시하고,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자신에 대한 비승인이나 무시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노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겉보기에 그들은 자신만만하고 웅대해 보이나, 이는 고달픈 인상 관리와 방어의 산물이고, 실은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아상이 내재해 있다.

#### 자기애의 하위 유형: 외현형과 내현형

자기애적 성격에는 강함과 약함이, 그리고 웅대함과 초라함이 동시에 존재한다. 자기에성 성격의 전형적인 사례는 표면적인 웅대함으로 내재한 초라함을 가리는 경우이고,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통계 편람(Diagnostic Statistical Manuals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 이하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상에서 묘사되는 자기에성 성격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기애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웅대함과 취약함이므로, 두 요소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하위 유형이 나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것은 웅대함이 표방되고 취약성은 감춰진 경우이나, 반대로 취약성이 전면에 드러나고 웅대성은 은밀하게 숨겨지는 또 다른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

자기애성 성격에 대한 임상적인 관찰도 하위 유형화를 지지한다. Gabbard(1989)에 따르면, 자기애는 ‘무감각형’과 ‘과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스스로에 도취되어 잘난 체하며 공격적인 유형, 즉 웅대함이 강조된 스

타일이고, 반면에 후자는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쉽게 상처를 받는 유형, 즉 취약함이 현저한 스타일이다. 특히 민감형 자기애는 자신을 과장해 보이려는 소망이 있으나, 이를 드러내기보다는 비밀스럽게 간직한다는 점에서 웅대함이 속으로 숨은 내현형이라 볼 수 있다. 유사하게, ‘후피형(thick-skinned narcissist)’과 ‘박피형(thin-skinned narcissist)’으로 나누기도 하며(Rosenfeld, 1987), 외현형(overt type)과 내현형(covert type)으로 구분짓기도 한다(Akhtar & Thompson, 1982).

임상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하위 유형화의 증거들은 발견된다. Wink (1991)는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추출된 여섯 종류의 자기애 척도를 요인분석했는데, 상호독립적인 두 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웅대성-과시성」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과민성-취약성」요인이었다. 상호간의 상관은 0에 가까웠지만, 두 요인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형제 평정과 관찰자 평정에서 모두 자만심이 강하고 거만하며 특권 의식이 높다고 평가받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웅대성 요인과 취약성 요인이 자기애적 기본 특징(거만함과 특권의식)을 공유하나, 세부 특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여서, 하위 유형화를 지지한다.

하위 유형화의 연구 흐름에서 Hendin과 Cheek(1997)은 내현형 자기애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척도(과민성 자기애 척도)를 개발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내현형 자기애를 나누어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강선희와 정남운, 2002; 정남운, 2001). 측정 도구가 개발됨에 따라, 외현형 및 내현형 자기애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뤄진 바 있다. 이들 연구를 대별하면, 외현 및 내현

형 자기애와 관련된 정서 특징(예컨대, 우울, 분노, 대인불안, 삶의 만족감 등)을 탐색하려는 노력(박세란, 2004, 연구 1; 이준득, 2005, 연구 1; Rose, 2002), 두 유형의 자기애 성향자들이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는 자기 고양전략과 방어를 밝히려는 노력(박세란, 2004, 연구 2; 이준득, 2005, 연구 2; Cooper, 2000; Robbins & Dupont, 199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외현형 자기애는 내현형에 비해 자존감이 더 높고,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일치도가 더 높으며(박세란, 2004), 자기 개념이 더 명료하다(이준득, 2005). 반면에 내현형 자기애는 외현형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박세란, 2004), 대인 불안이 더 높고, 적대감과 특질 분노는 더 높되 이를 더 억제하는 것(이준득, 2005)으로 묘사된다. 즉, 내현형이 외현형에 비해 정서적 불편감과 취약함이 더 크되, 이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현형은 긍정적 사건을 내부 귀인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반면에 내현형은 부정적 사건을 외부 귀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박세란, 2004). 즉, 외현형은 긍정적 사건을 계기로 자기를 고양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나, 내현형은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소극적인 방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취약한 자기 개념의 보호라는 목적에서는 일치하나, 전자는 웅대성을 전시하는 방법을, 후자는 타인을 살피서 가능한 비난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Cooper, 2000). 이와 일치하게 실험실에서 실패 경험을 유도했을 때, 높은 자존감을 유지해야 하는 외현형은 발끈하며 분노를 표출하나, 억제적

인 내현형은 분노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이준득, 2005).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외현형은 분노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하나, 내현형은 억제 속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 자기애의 하위 유형별 내적 구조

외현형과 내현형 자기애가 자존감, 우울, 분노,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태도, 자존감 유지 전략 등에서 체계적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외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내부 구조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즉, 정서, 귀인, 자존감 조절 등의 다양한 변인에서의 차이는 이를 유발하는 원천 요인에 연구 관심을 갖게 만드는데, 그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자기 구조이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내적 구조를 탐색하는 시도가 간간히 있어 왔다(김윤주, 한성렬, 1993; Rhodewalt & Morf, 1995; Rhodewalt, Morf, & Cheney, 1998; Rhodewalt & Regalado, 1996). 이 연구들에서 자기의 내적 구조를 묘사하기 위해 쓰인 지표는 ‘자기 복잡성(Linville, 1985, 1987)’과 ‘자기 구획화(Showers, 1992a)’이다. 그러나 자기 구조에 대한 해명은 일관적이지 않은 편이다.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복잡성이 높아지고(김윤주, 한성렬, 1993), 자기 개념화가 더 분화된다(Rhodewalt & Regalado, 1996)는 주장도 있으며, 반면에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복잡성이 낮다(Emmons, 1987; Rhodewalt & Morf, 1995)는 상반된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통칭으로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자기 구조에 대해서 분명하고 반복 검증되는 기술과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더해, 모든 자기애가 동질적이지 않으며, 적극적인(혹은 노골적인) 형과 소극적인(혹은 은근한) 형으로 나뉠 수 있다는 최근의 발견들은 하위 유형에 따른 자기 구조의 규명과 명세를 더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자기의 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자기 복잡성과 자기 구획화를 중심으로, 내현형과 외현형의 내적 구조가 어떤 점에서 공통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구분되는지를 밝혀 하려 한다.

#### 내적 구조의 한 가지 지표: 자기 복잡성

자기의 내적 구조를 묘사하는 지표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은 자기 복잡성(self complexity)과 자기 구획화(self compartmentalization)이다. 구조 특성에 대한 측정치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자기, 즉 나는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며, 각 측면들은 다시 여러 가지 속성들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본 연구자의 자기(self)는 ‘교수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아버지로서의 나’, ‘잘난 나’, ‘못난 나’ 등의 여러 측면(즉, 모습)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각 측면은 다시 여러 속성으로 구성된다. 가령 ‘교수로서의 나’는 ‘책임감 있다’, ‘권위적이다’, ‘부지런하다’는 특징이 있을테고, 반면 ‘남편으로서의 나’는 ‘의존적이다’, ‘미숙하다’, ‘게으르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복잡성 지표는 나를 구성하는 각 측면과 각 속성의 체계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가에 의해 정의된다. 자기를 구성하는 측면이 많고, 여러 측면에 걸쳐 속성이 중복되지 않을수록(즉, 연결이 적을수록) 복잡성은 증가되게 된다.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은 적응적인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복잡한 구조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충해서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자기의 구조적 복잡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주어지는 성공이나 실패 피드백에 반응해서 더 크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하였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분의 변화 진폭이 더 컸다(Linville, 1985). 복잡한 구조가 정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자기 측면의 수가 많으므로, 스트레스로 인해 가해진 충격을 여러 가지 측면중 하나로 국한시킬 수 있고, 각 측면들간의 중복이 적으므로(즉, 연결통로가 약하므로) 부정적 여파가 다른 측면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흐름에 따르면, 자기 복잡성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두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된다. 즉, 자기 복잡성이라는 구성개념이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며, 특히 유인가(valence)에 민감함이 밝혀지고 있다(Rafaeli-Mor, Gotlib, & Revelle, 1999). 유인가에 따라 긍정 복잡성과 부정 복잡성으로 나뉘며, 둘은 적응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일관된 발견이다(Jordan & Cole, 1996; Morgan & Janoff-Bulman, 1994; Rafaeli-Mor & Steinberg, 2002; Woolfolk, Novalany, Gara & Allen, 1995).

긍정적 자기복잡성은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완충 및 원기 회복 요인으로 작용하나,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높은 것은 반대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긍정 복잡성이 높은 것은 외상의 영향을 완충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즉, 긍정적 자기 표상이 다양하며, 분화되어 있으면(즉, 측면수가 많고, 중복이 낮으면) 외상으로 야기되는 장기적 어려움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Morgan & Janoff-Bulman, 1994). 반면에 부정적 자기복잡성이 높을수록 현시점에서 우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울 수준도 높게 예측되어서, 높은 부정적 복잡성은 우울의 취약성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Woolfolk et al., 1995).

이러한 연구 발견에 자기애의 하위 유형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웅대성과 전시성이 강조되는 외현형은 긍정적 자기 측면이 복잡한 구조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기분과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에 취약성과 부끄러움이 강조되는 내현형은 부정 복잡성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의 표상이 복잡해서, 쉽게 자극되고 그 여파가 쉽게 전파되는 구조를 예상할 수 있다.

#### 내적 구조의 또다른 지표: 자기 구획화

내적 구조의 다른 지표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이다(Showers, 1992a, 1992b; Showers & Kling, 1996; Showers, Abramson & Hogan, 1998; Showers & Kevlyn, 1999; Showers & Larson, 1999). 이 역시 자기(self)가 다양한 측면에 걸친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측면과 속성의 위계적 조직에서 구획화가 주목하는 부분은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이 하나의 측면 안에 담긴 정도이다. 즉, 자기의 한 측면(예: ‘아버지로서의 나’)에 긍정 속성(예: “따뜻하다.”)과 부정 속성(예: “잔소리가 많다.”)이 함께 존재할 때, 평가적인 측면에서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반면에 자기의 한 측면(예: ‘아버지로서의 나’)에는 긍정 속성만이 부여되고(예: “따뜻하다.”, “잘 보호한다.”), 다른 측면(예:

‘남편으로서의 나’)에는 부정 속성만이 부여될 때는(예: “차갑다.”, “무관심하다.”), 구획화된 구조이다.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는 그 어의(語意)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신에 관한 좋은 속성과 나쁜 속성을 배타적으로 나누어, 별개의 정신적인 방에 배치하는 자기 구조를 가리킨다.

평가적으로 통합적인 구조, 즉 낮은 구획화 구조의 적응적 가치는 부정적 정보와 경험의 여파를 차단하는 점에 있다. 외부 자극에 의해 자신의 부정적 측면(예: “잔소리가 많다.”)이 건드려졌을 때,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구조에서는 이와 연결된 긍정적 정보(예: “그러나, 따뜻하다.”)를 소환해서 부정적 특성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 통합 구조는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 반응을 완충시키는 전략적인 면이 있다.

앞서 자기애 성향자들의 내적 구조가 웅대함과 취약함이 분리되어 함께 존재하는 양상임을 개관한 바 있다. 웅대하지만 동시에 취약하고(Kernberg, 1975), 과시적인 거대 자기(grandiose self)가 수직 분리라는 벽을 두고 낮은 자존감 및 수치심과 나란히 있고(Kohut, 1971), 무의식적인 자격지심과 의식적인 우울감이 분리되어 있다(Robins et al., 2001). 우리는 여기서 자기애의 구조적 분리와 자기 구획화간의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기애의 내적 구조를 자기 구획화의 틀로 번역하면, 자기 측면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 측면인 웅대성에는 긍정적 속성(예: “자신감 넘친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유쾌하다.” 등)만이 부여되고, 다른 측면인 취약성에는 부정적 속성(예: “상처받기 쉽다.”, “부끄럽다.”, “우울하다.” 등)만이 부여되는 셈

이므로, 구획화가 높은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개관한 바에 따르면, 자기애 성향자를 대상으로 구획화를 측정하는 연구는 소수이다. 유일하게 Rhodewalt 등(1998)이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집단의 구획화 지표를 측정하였으나, 자기애적이면서 동시에 구획화가 높을 때 자존감의 기복이 커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을 뿐, 구획화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기애성 성격에서 자기 구획화의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아직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정이다.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대한 이해를 구획화에 대한 연구의 틀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자기애성 성격은 웅대한 자기와 취약한 자기의 이질적 공존이 그 특징이므로, 통합 구조보다는 구획화 구조에 가까울 것이다. 하위 유형별로 세분화해 보면, 외현형은 긍정 구획(자신의 강함과 거대함)과 부정 구획(자신의 약함과 초라함)이 배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긍정 구획에 더 큰 가치와 무게 중심을 두는 경우이다. 따라서 긍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긍정 구획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므로, 일상 생활에서도 자신의 탁월함과 특별함이 표상된 긍정 구획이 자주 활성화되어서 자기 고양이 이뤄질 것이다.

반대로, 내현형 자기애는 자기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며, 부정 구획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으므로,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취약함, 과민함, 초라함 등으로 표상된 부정 구획이 자주 상기되므로, 자존감은 저하되고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는 증가될 것이다. 자신의 약점(예: “나는

나약하다.”)이 자극될 때, 장점(예: “나는 섬세하다.”)을 불러내서 완충할 수도 있겠지만, 구획화의 차단벽 때문에 상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단 자극된 부정적 정서를 중간에 달래고 가라앉힐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주요한 정신 병리로 떠오르고 있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내적 구조를 밝혀려 한다. 임상적인 관찰과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자기애에는 질적 불연속선이 있어서, 외현형과 내현형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맞추어 두 유형의 자기애적 성격의 자기 구조를 명세하고 규명하되, 그 지표로는 자기 복잡성과 자기 구획화를 채용할 것이다. 이들 지표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사람들의 자기상이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인데, 이에 관한 예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 1.** 외현형 자기애 집단은 내현형에 비해 긍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을 것이다.

**예언 2.**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외현형에 비해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을 것이다.

**예언 3.** 외현형 자기애 집단은 긍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보일 것이다.

**예언 4.**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부정 중심의 구획화 구조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일반 대학생

과 사이버 대학생 497명을 대상으로 자기애 성향 집단을 선별하였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이하 NPDS)와 내현형 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이하 CNS)중 순수한 내현형 자기애를 반영하는 요인 1(‘목표불안정성’), 요인 4(‘과민/취약성’), 요인 5(‘소심/자신감 부족’)의 점수를 기준으로 외현 및 내현 자기애 집단을 선별하였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특징이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 선행 연구(김방글, 오수성, 2009; 박세란, 2004; 이준득, 2005)를 참고하여 NPDS의 점수가 상위 25%(77점 이상)인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위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즉, 일차 선별된 집단 중 CNS 1, 4, 5요인의 점수(이하 CNS 145)가 상위 10%(94점 이상)인 경우로 내현형 자기애 집단(24명)을 구성하였고, 반대로 CNS의 내현형 고유 척도가 하위 40%(69점 이하)인 경우를 외현형 자기애 집단(23명)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NPDS와 CNS 145에서 모두 하위 20~40%대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통제 집단(26명)으로 구성하였다. 통제 집단은 선별 척도의 최하위 점수 대신에 중하위 점수대로 선별한 셈인데, 이는 자기애 척도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보고에서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세 집단은 연령의 차이가 없었으며,  $F(2, 70) = 2.10, m$ , 성별분포도 다르지 않았다,  $\chi^2(2, N=73) = 2.56, m$ . 자기애성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인 NPDS에서는 내현형 및 외현형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높았고,  $F(2, 70)=151.18, p < .001$ , 내현형 자기애를 측정하는 CNS145에서는 내현형 집단이 외현형 및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F(2, 70)=307.07, p < .001$ .

표 1. 내현형 및 외현형 자기에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인구학적 변인 및 선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현형 자기에 성향 집단 <sup>A</sup>	외현형 자기에 성향 집단 <sup>B</sup>	정상 통제 집단 <sup>C</sup>	차이 검증	사후 비교 (LSD <sup>‡</sup> )
연령(세)	29.50(7.05) <sup>†</sup>	33.78(11.14)	34.46(8.89)	$F(2, 70) = 2.10$	
NPDS	84.00(6.05)	82.78(5.46)	63.38(1.41)	$F(2, 70) = 151.18^{***}$	A, B > C
CNS 145	103.16(7.52)	61.26(8.16)	65.00(2.68)	$F(2, 70) = 307.07^{***}$	A > B, C
남/녀	7/17	8/15	4/22	$\chi^2(2, N=73) = 2.56$	

주. NPDS=자기에성 성격 장애 척도; CNS 145=내현형 자기에 척도의 1, 4, 5요인 점수.

<sup>†</sup> 괄호는 표준편차임.

<sup>‡</sup> Least Square Difference

<sup>\*\*\*</sup>  $p < .001$ .

### 측정 도구

#### 자기에성 성격 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황순택(1995)이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에서 제시된 자기에성 성격 장애의 진단 준거를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18개 문항이며, 7점 척도상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는 .68(황순택, 1995) ~ .88(한수정, 1990)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표집(대학생 497명)에서는 .84였다.

####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Ahktar와 Thompson (1982)의 ‘자기에성 성격 장애의 임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45개 문항이며,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게 된다. 요인 분석 결과, 5개의 하위척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은 외현형과 내현형의 공통요인과 내현형의 고유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공통 요인으로는 a)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과 b) 착취/자기중심성

이 얻어졌고, 내현형 고유 요인으로는 c) 목표 불안정, d) 과민/취약성, e) 소심/자신감 부족이 도출되었다. 내적 합치도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에서 .91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의 표집에서는 .90이었다. 한편, 내현형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한 CNS145의 내적 합치도는 본 연구의 표집에서 .87이었다.

#### 자기에의 주관적 분류

자기에적 성향의 하위분류를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5점 척도에서 답하게 하였다. 1번 질문은 자기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도(즉, 외현화의 정도)를, 2번 질문은 자기에의 내현화 정도를, 그리고 3번 질문은 내현 대 외현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는 자기에의 주관적 분류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가 고안하여 포함시켰다.

1. 내가 자신을 아끼고 자랑스워 하는 것이 바깥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2. 내 자신을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추는 편입니까?
3. 내가 나를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속으로 은근히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의 비중이 큰 것 같습니까?

### 자기 측면 검사

Linville(1985, 1987)이 자기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신의 특성에 관한 카드 분류 과제를 지필형으로 변용한 것이 자기 측면 검사이다(황성훈, 2007). 선별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측면 검사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피험자들은 검사의 도입부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제시받았다:

다음은 나(자기)를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혹은 모습)으로 구성됩니다. 나의 여러 측면(모습)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역할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분류할 수도 있고(예컨대, '학생으로서의 나'), 상황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일할 때의 나'). 특정 영역을 기준으로 나의 측면을 나눌 수도 있으며(예컨대,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나'), 특징을 중심으로 측면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예컨대, '착한 나'). 그러나 역할, 상황, 영역, 특징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할 뿐이고, 나의 측면을 분류하는 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자신의 각 측면을 40개의 속성 단어를 통해 묘사한다. 단어는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가 각각 20개였고, 선행 연구(김윤희, 2001; 이수현a, 2005; 이수현b, 2005)에서 사용한 속성 단어 목록을 이용하여 구성했다. 피험자들은 자신의 각 측면에 해당하는 특성을 40개의 속성 중에서 고르게 된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자신이 묘사한 각 측면에 이름을 붙이고(예: '일반적인 나', '내안의 또다른 나', '진정한 내 모습', '보여지는 내 모습', '내면의 걱정', '인간으로서의 나', '학생으로서의 나', '여자로서의 나' 등), 각 측면들의 관계를 두 개의 항목에 걸쳐 평정한다. 즉, 조화도('나의 측면들이 전체적인 나의 눈에서 볼 때 서로 조화로운 정도')와 질서도('나의 측면들이 전체적인 나의 눈에서 볼 때, 정돈되고 질서 있는 정도')를 -3에서 +3에 이르는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한다. 이는 자기측면간의 분리에 대한 보완적인 측정치를 얻기 위해 새로이 추가된 절차이다. 조화도와 질서도가 낮게 평정될수록, 자기 구조를 통합보다는 흩어짐과 파편화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측면 검사로부터 자기 복잡성 지표( $H$  계수)가 산출된다.  $H$ 는 본래 Scott(1969)의 인지적 공간에 대한 구조 모형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속성 분류 속에 내재해 있는 독립 속성의 수를 나타낸다. 예컨대, 40장의 카드를 주고 분류를 했는데, 3개의 측면이 구성되었다면  $3 \times 40$ 의 표가 만들어진다. 속성중 하나인 '성실하다'가 측면 1에 들어있고, 측면 2와 3에는 없다면, '성실하다'의 각 측면에 걸친 유무 여부(이를 '집단 조합'이라고 부름)는 차례대로 '있다(1)', '없다(0)', '없다(0)'가 되며, 이 조합에서 '성실하다'의 수는 1이 되는데, 이것이 곧 소개할 공식에서  $n_i$  (즉,  $i$ 번째 속성의

집단조합에서 그 속성이 등장하는 회수임)이다. 따라서 40개의 속성을 사용했다면, 모두 40개의 집단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H = \log_2 n - \sum (n_i \log_2 n_i) / n$$

$n$ 는 총 속성의 수이며,

$n_i$ 는  $i$ 번째 집단 조합에서 그 속성이 등장하는 회수임.

공식에서 주목할 것은  $n_i$ 이다. 측면간의 중복이 적을수록(즉, 독립적일수록),  $n_i$ 는 작아지고,  $H$ 는 커지게 되므로, 결국  $H$ 는 분류 속에 내재해 있는 독립 속성의 수를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분류된 자기 측면들에 걸쳐서 독립적인 속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H$ 는 0부터  $\log_2 n$  (40개의 속성을 사용했다면 5.31)사이의 값을 갖는다.

긍정 속성 20개만을 고려해서  $H$ 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기 복잡성(positive self complexity)이다. 마찬가지로, 부정 속성 20개만을 고려하여, 부정적 자기 복잡성(negative self complexity)을 계산하였다. 긍정(혹은 부정) 복잡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자기 측면에 걸쳐서 긍정적(혹은 부정적) 속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즉, 별개의 특징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기 구획화 지표( $\phi$ )의 산출은 긍정성 대 부정성을 한 차원으로, 분류한 묶음을 다른 차원으로서 해서  $\chi^2$ 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교사로서의 나’, ‘남편인 나’, ‘이상적 나’), 각각에 긍정 및 부정 속성을 부여했다면(예: 교사로서 유능하고 부지런하다, 남편으로서 의존적이고 게으르다, 이상적 나는 존경스럽고 멋지다),

자기 측면(3) × 유인가(2; 긍정 속성 대 부정 속성)의 표가 만들어질 텐데, 이로부터  $\chi^2$ 를 계산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계산을 거친다:

$$\phi = \sqrt{\chi^2 / N}$$

$N$  = 분류에 동원된 속성의 수

따라서 공식에 따르면  $\phi$ 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분류한 묶음(즉, 범주 혹은 측면)들이 긍정 대 부정 차원과 연합되어 있는 정도를 반영한다.  $\phi$ 가 1에 가까워질수록, 범주 별로 긍정이나 부정 특성이 갈라지게 되고(즉 구획화되어 있고), 0에 가까울수록 분류된 자신의 각 측면들이 긍정성 대 부정성과 무관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다.

구획화에 부속되는 지표로서, 차별적 중요성(Differential Importance; 이하 DI; Pelham & Swann, 1989)을 분석하였다. 이는 분류해낸 여러 측면 중에서 긍정적 측면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이다. 자신의 각 측면들을 나타내는 묶음을 만든 후, 각 묶음이 중요한 정도, 긍정적인 정도, 부정적인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각각 평정한다. 차별적 중요성은 각 측면의 중요성을 한 변인으로, 각 측면의 긍정성에서 부정성 평정을 뺀 값을 다른 변인으로서 해서 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것이고,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차별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구획화를 세분화할 수 있다.

### 절 차

피험자들은 심리학 관련 수업의 이수 사항의 하나로 설문과 연구에 참여토록 했다. 대규모 표집(497명)을 대상으로 NPDS와 CNS를

표 2. 차별적 중요성에 따른 구획화의 세분

		구획화 계수( $\phi$ )	
		낮음	높음
차별적 중요성 (DI)	낮음	부정 중심 통합	부정 중심 구획화
		(긍정과 부정 특징이 한 범주에 혼합되어 있으며, 부정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긍정 대 부정 특징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되, 그중 부정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높음	긍정 중심 통합	긍정 중심 구획화
		(긍정과 부정 특징이 한 범주에 혼합되어 있으며, 긍정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긍정 대 부정 특징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되, 그중 긍정적 측면을 중요시 여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내현형 자기애, 외현 자기애 및 정상 통제 집단을 선별하였다. 최종 선별된 피검자들을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산화된 자기측면 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설계 및 분석

자기 구조의 진단적 지표(자기 복잡성, 구획화)를 종속 측정치로 해서 자기애 집단 구분(내현형 자기애/외현형 자기애/정상 통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유인가에 따라 긍정 자기 복잡성과 부정 자기 복잡성으로 나누어, 자기애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자기 구획화의 종류를 세분하기 위해, 구획화 계수( $\phi$ )와 차별적 중요성(DI)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즉, 집단 구분을 없애고 합쳐서 구획화 및 차별적 중요성의 중간값을 산출하였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구획화 상, 하 집단, 차별적 중요성 상, 하 집단을 구성했다. 표 2와 같이 네 개의 통합 및 구획화 집단이 얻어질 수 있다. 구획화 구분(긍정 통합/부정 통합/긍정 구획/부정 구획)을 한 축으로 하고, 자기애 집단(외현/내현/통제)을 다른 축으로 해

서, 카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자기애 하위분류의 확인

자기애를 하위분류하기 위해 자기애성 성격 장애 척도와 내현형 자기애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는데,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들이 스스로 판단한 자기애의 유형을 비교하였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애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정도는 외현형 자기애 집단이 내현형 집단에 비해 더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고,  $t(44) = -3.67, p < .001$ , 반면에 자기애를 감추는 정도에서는 내현형 집단이 외현형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t(44) = 1.84, p = .07$ . 그리고 자기애를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A)과 은근히 감추는 부분(B)의 비중을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했을 때는 외현형 집단이 내현형 집단에 비해 A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t(44) = -2.97, p < .01$

이로 보건대, NPDS와 CNS145의 조합을 통해 분류한 자기애의 하위유형은 당사자들의

표 3. 내현형 및 외현형 자기에 집단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기에 유형

	내현형 자기에 집단( $n=23$ )	외현형 자기에 집단( $n=23$ )	차이 검증
자기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도	2.61(.99) <sup>†</sup>	3.52(.79)	$t(44) = -3.67^{***}$
자기를 감추는 정도	3.17(1.07)	2.65(.83)	$t(44) = 1.84^{\ddagger}$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대 감추는 부분의 비중 <sup>a</sup>	2.17(1.07)	3.04(1.14)	$t(44) = -2.97^{**}$

<sup>†</sup> 괄호는 표준편차임.

<sup>a</sup> 점수가 높을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함.

<sup>‡</sup>  $p = .07$ . <sup>\*\*</sup>  $p < .01$ . <sup>\*\*\*</sup>  $p < .001$ .

주관적 분류를 준거로 검토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외현형 집단은 자기 사랑을 바깥으로 더 드러내나, 내현형 집단은 속으로 더 감추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두 가지 자기 사랑의 상대적 함량에 있어서도 외현형은 드러나는 부분이, 내현형은 감춰지는 은근한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기 복잡성

전체적인 자기 복잡성에서는 표 4에서 보듯이 세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2, 70) = .65$ ,  $ns$ . 이어서, 자기 복잡성 지표

를 유인가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긍정적인 자기 속성들로 구성되는 복잡성에서는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외현형 자기에 비해 더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에 근접했다,  $F(2, 70) = 2.71$ ,  $p = .07$ . 그러나 부정적인 자기 속성의 복잡성에서는 반대로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외현형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F(2, 70) = 5.55$ ,  $p < .01$ .

따라서 긍정적 자기 복잡성에서 외현형 자기에 집단이 내현형 자기에 집단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예언은 지지되었다. 또한 부정적 자기 복잡성에서는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더 높

표 4. 내현/외현 자기에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자기복잡성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 $H$	긍정 $H$	부정 $H$
내현형 자기에 집단 <sup>A</sup>	2.80(1.14) <sup>†</sup>	2.02(1.11) <sup>†</sup>	2.42(1.07)
외현형 자기에 집단 <sup>B</sup>	2.68(1.09)	2.67(1.04)	1.65(.85)
통제 집단 <sup>C</sup>	2.47(.85)	2.36(.66)	1.63(.88)
$F(2, 70)$	.65	2.71 <sup>‡</sup>	5.55 <sup>**</sup>
사후 비교(LSD <sup>‡</sup> )		A < B	A > B, C

<sup>†</sup> 괄호는 표준편차임. <sup>‡</sup> Least squared difference.

<sup>‡</sup>  $p = .07$ . <sup>\*\*</sup>  $p <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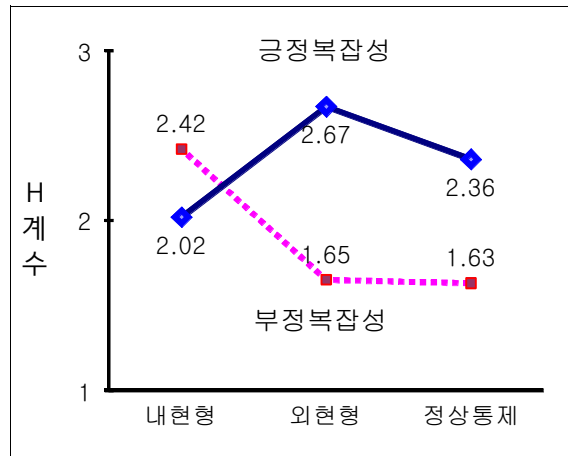


그림 1. 자기 복잡성의 유인가와 자기애 하위분류의 상호작용

을 것이라는 예언도 함께 뒷받침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복잡성의 유인가와 자기애 하위분류는 상호작용하는 양상이었는데, 실제로 긍정 및 부정 복잡성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자기애 집단 구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는 2 × 3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MANOVA)에서 두 요인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했다, Pillai's Trace = .34,  $F(2, 70) =$

18.33,  $p < .001$ .

#### 자기 구획화와 주관적 통합성

자기 구조의 분리를 반영하는 구획화 지표를 분석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전반적인 구획화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F(2, 70) = 3.22, p < .05$ . 정상 통제 집단이 외

표 5. 내현/외현 및 통제 집단에서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현형 자기애 집단 <sup>A</sup>		외현형 자기애 집단 <sup>B</sup>		통제 집단 <sup>C</sup>		F	사후 비교 (LSD <sup>†</sup> )
	M(SD)	n	M(SD)	n	M(SD)	n		
구획화( $\phi$ )	.57(.27)	24	.42(.22)	23	.60(.29)	26	3.22*	B < C
차별적 중요성	.20(.50)	19 <sup>a</sup>	.47(.58)	21 <sup>a</sup>	.58(.31)	24 <sup>a</sup>	3.44*	A < C
조화도	-.50(1.74)	24	.87(1.52)	23	.58(1.13)	26	5.67**	A < B, C
질서도	-.58(1.34)	24	.87(1.52)	23	.62(1.09)	26	8.21***	A < B, C

<sup>†</sup> Least squared difference.

<sup>a</sup> 차별적 중요성은 상관계수이므로, 한 변인의 값이 고정적일 때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측치로 처리함. 이 때문에 자유도가 감소함.

\*  $p < .05$ . \*\*  $p < .01$ . \*\*\*  $p < .001$ .

현형 자기에 집단보다 구획화가 더 높은 양상이었다. 즉, 외현형 자기에 집단이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 자신의 좋고 나쁨을 분리하는 구조가 오히려 더 적은 경향이 있었다.

자기의 긍정 및 부정 측면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하는 차별적 중요성 지표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2, 61) = 3.44, p = .05$ .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외현형 자기에 및 통제 집단에 비해 차별적 중요성이 낮아서,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즉, 부정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자신의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중에서 후자를 더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내적 구조에 대한 주관적인 통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 측면들이 전체로서 조화로운 정도와 질서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각각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70) = 5.67, p < .01$ ;  $F(2, 70) = 8.21, p < .001$ . 즉,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외현형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자신을 구성하는 모습들이

조화롭지 않으며, 질서정연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분리에 대한 보완적인 평정인 자기 측면들의 내적 조화와 질서에서는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자기 측면간의 부조화와 균열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의 구조적 분리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두 지표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자기에 집단 구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는  $2 \times 3$ 의 반복 측정 분산 분석(repeated measure MANOVA)을 적용했다. 그 결과, 분리지표의 주효과가 유의미했으며,  $F(2, 61) = 3.59, p < .05$ , 분리 지표와 집단구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Pillai's Trace = .09, F(2, 61) = 3.08, p = .053$ .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구획화는 높고 차별적 중요성은 낮은 구조(즉, 부정 중심 구획화)를 보이고, 정상 통제 집단은 구획화와 차별적 중요성이 모두 높은 구조(즉, 긍정 중심 구획화)가 특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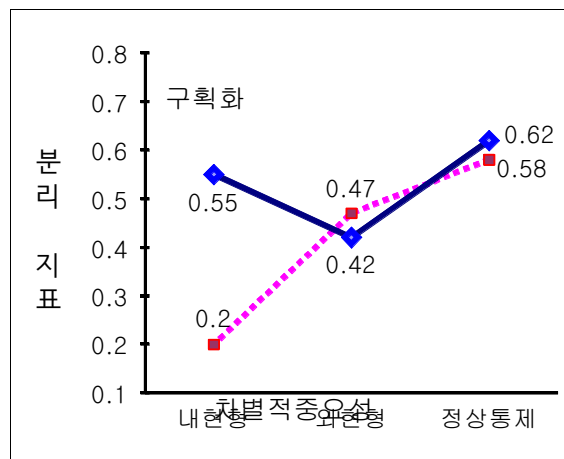


그림 2. 분리 구조 지표(구획화, 차별적 중요성)와 자기에 하위분류의 상호작용

세분된 구획화 지표

구획화 계수와 차별적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면, 표 3과 같이 구획화를 세분할 수 있다. 구획화 지표의 중간값(.54)과 차별적 중요성의 중간값(.55)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을 나누어서 네 개의 집단을 만들었다. 구획화 종류의 분포가 자기애 집단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두 요인은 유의미한 연합을 보였다,  $\chi^2(2, N=64) = 17.75, p < .01$ .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 통제 집단은 긍정 중심 구획화가 더 빈번하고,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부정 중심 구획화가 더 많은 분포이며, 이는 구획화 및 차별적 중요성을 반복 측정치로 삼아 분산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긍정 대 부정 속성을 분리하되, 둘 중 어

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보는가에 따라 긍정 중심 구획화와 부정 중심 구획화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역기능적인 것은 후자이다. 자신의 부정적 측면이 중요하고 자주 상기되는데, 이들을 하나의 구획에 몰아서 담으면(즉, 부정 중심 구획화), 부정적 측면은 자주 자극되고, 일단 건드려지면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조명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으로서 구획화 집단을 역기능적 구획화의 사용 여부(즉, 부정 중심 구획화 대 나머지 세 가지의 구조)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역기능적 구획화와 자기애 집단의 연합이 유의미했다,  $\chi^2(2, N=64) = 6.04, p < .05$ . 표 7의 좌측에서 보듯이 부정 중심의 역기능적 구획화는 내현형 자기애 집단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외현형 자기애나 통제 집단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이어서,

표 6. 내현/외현 자기애 및 통제 집단에서 구획화의 분포

	긍정 중심		부정 중심		세로계
	통합 집단	구획 집단	통합 집단	구획 집단	
내현형 자기애 집단	4	2	5	8	19
외현형 자기애 집단	8	3	8	2	21
통제 집단	3	12	4	5	24
가로계	15	17	17	15	64

표 7. 내현/외현 자기애 및 통제 집단에서 역기능적, 기능적 구획화의 분포

	역기능적(부정 중심) 구획화		기능적(긍정 중심) 구획화	
	사용함	사용안함	사용함	사용안함
내현형 자기애 집단(n=19)	8	11	2	17
외현형 자기애 집단(n=21)	2	19	3	18
통제 집단(n=24)	5	19	12	12
계	12	47	16	43

기능적 구획화의 사용 여부(즉, 긍정 중심 구획화 대 나머지 세 가지 종류)와 자기에 집단의 연합을 알아봤는데, 역시 유의미하였다,  $\chi^2(2, N=64) = 10.88, p < .01$ . 표 7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상 통제 집단에서 주로 기능적 구획화가 발견되었으며, 내현형이나 외현형 자기에 집단에서는 빈도가 낮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구획화에서는 오히려 정상 통제 집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자신의 긍정적 속성들을 함께 보관하는 기능적 구획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부정적 속성을 한곳에 모으는 역기능적 구획화는 내현형 자기에 집단의 특징이었다. 구획화의 측면에서 볼 때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부정적 측면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별도 범주에 분리하여 조직화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정적 생활사건이 발생하면 부정 구조가 쉽게 활성화되고 구획화의 차단 작용으로 인해 이를 상쇄하거나 중립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구조를 동원할 수 없으므로, 외현형 자기에 집단은 부적응에 취약해지게 된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성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 구조에 접근하고자 했다. 자기에를 내현형과 외현형으로 하위분류하고, 이들이 갖는 내적 구조를 자기 측면 검사가 제공하는 자기 복잡성 지수와 구획화 지표를 통해 기술하고자 했다.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따른 긍정 및 부정 자기 복잡성의 차이

자기애 집단의 자기 복잡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연구 보고들이 있었는데(김윤주, 한성렬, 1993; Emmons, 1987; Rhodewalt & Morf, 1995), 실제로 얻은 결과에 따르면 내현형, 외현형 자기에 집단은 통제 집단과 전반적 자기 복잡성에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인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는, 예언과 일관되게,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현형 자기에 집단은 긍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았으며, 내현형 자기에 집단은 부정적 자기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높은 긍정 복잡성은 외현형 자기에 집단이 자신의 긍정적 측면이 더 많고, 긍정적 속성의 측면간의 중복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현형 자기에 집단은 자신의 긍정적 측면과 속성을 다양하게 분화시켜 자기 구조를 조직화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현형 자기에가 겉으로 표방하는 자아상의 웅대함을 반영한다. 반면에, 높은 부정 복잡성은 내현형 자기에 집단이 부정적 자기 측면이 많고 다양한 부정적 특성들이 산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내현형 집단은 자신의 부정적 측면과 속성을 복잡한 구조로 표상하고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외현형 자기에 성향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자기 복잡성은 적응적 요소로 볼 수 있다(Morgan & Janoff-Bulman, 1994). 높은 긍정 복잡성은 외현형 자기에 성향자들을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며, 자기 고양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자기 복잡성에서 외현형 자기에 집단과 정상 통제 집단이 차이가 없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



현형 자기애 집단의 긍정 자기 복잡성( $M=2.67$ )은 정상 통제 집단( $M=2.33$ )보다 약간 높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외현형 자기애는 웅대한 자아상을 표방하므로, 내현형 자기애뿐만 아니라 정상 통제 집단에 비해서도 긍정적 자기 복잡성이 더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정상 수준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기 복잡성이 적응을 위한 완충 요인으로 활용되는 경우(즉, 정상 통제 집단)와 자아의 팽창과 과장된 자기 가치로 오용되는 경우(즉, 외현적 자기애 집단)를 구분하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반면, 내현형 자기애 집단의 높은 부정적 자기 복잡성은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정적 자기 표상이 다양하고 분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극하는 생활 사건에 직면해서 우울이나 불안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김윤희, 2001; Woolfolk et al., 1995). 이와 일관되게, 내현형 자기애는 외현형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더 우울하며, 특질 분노가 더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세란, 2004; 이준득, 2005; Wink, 1991).

#### 내현형 자기애 집단의 부정 중심 구획화 구조와 낮은 주관적 통합감

전반적인 구획화 지표에서 정상 통제 집단이 외현형 자기애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그런데 정상 통제 집단의 높은 구획화는 긍정 중심 구획화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정상 통제 집단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되, 좋은 것이 자신에게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파악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 중심의 구획화는 적응적 가치가 있다. 즉, 부정 속성만을 따로 모아놓은 방(즉, 순수 부정 구획)이 있다고 해도, 그 방이 중요하지도 않고 자주 열어보지도 않아도 되는 사정이라면(즉, 구획화하되, 긍정 속성에 중심이 있다면), 적응적인 전략일 수 있다. 나를 이루는 요소들중 부정적인 측면이 적고 사소한 상황이라면 긍정 대 부정 측면을 나누는 것은 기능적인 선택일 수 있다(Showers, 1992b; Showers & Kevlyn, 1999). 부정 속성을 별개의 범주에 고립시켜서,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부정 중심 구획화가 특징적이었다. 즉, 긍정 속성과 부정 속성을 각각 따로 모아서 배타적 범주(즉, 구획)에 담되, 긍정 측면보다는 부정 측면이 자신에게는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였다. 부정 구획이 더 중심적이고 더 자주 상기되며 생활에서 대세를 차지하므로 더 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부정적 정보가 결정적이고 자주 상기되는 것이라면, 한 범주에 몰아넣는 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부정적 정보가 범람하게 된다(Showers, 1992b; Showers & Kevlyn, 1999). 게다가 구획화로 차단되어 있으므로, 긍정 속성과의 통합을 통해 부정적 활성화를 상쇄하거나 가라앉힐 기회가 적어진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다른 영역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잉일반화를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현상과 유사하다(Kernis, Brockner & Frankel, 1989).

내현형 자기애 집단의 부정 중심 구획화 구조는 주관적 통합감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었다. 실제로 내현형 자기애 집단에서 구획화가 높을수록 자기 측면간 조화도와 질서도는 떨

어졌다,  $r = -.57, p < .01$ ;  $r = -.59, p < .01$ . 자신의 중요성을 내심 과대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측면들이 전체로 보건대 조화롭지 않고, 질서정연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자기 부조화, 내적 모순과 갈등 등 내적 균열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획화를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분류하였을 때, 내현형 자기애는 역기능적 구획화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에 정상 통제 집단은 기능적 구획화 구조를 보였다. 즉, 내현형 자기애 집단이 부정 중심의 역기능적 구획화를 보인다는 예언은 확인되었다. 한편, 외현형 자기애 집단은 역기능적 구획화를 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정상 통제 집단에 가까웠고, 기능적 구획화를 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내현형 자기애 집단과 유사했다. 즉, 외현형 자기애 집단은 구획화의 기능성 대 역기능성 차원에서 정상 통제 집단과 내현형 자기애 집단의 중간에 위치했다.

종합하면, 자기애 집단이 구획화된 자기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지지되었다.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분리시켜 놓고 있었다. 즉,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드러내지 않는 하위 집단은 좋은 점만을 따로 보관한 구획과 나쁜 점만을 따로 담은 구획을 나누되, 후자인 부정 구획이 자신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이에 따르는 내적 균열을 경험하고 있었다.

내현형 자기애 집단이 보이는 역기능적 구획화 구조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반대 개념인 평가적으로 통합적인 사고의 발달을 촉진시키

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적 통합성이란 자신의 어떤 측면을 고려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두루 포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아의 통합은 대부분의 심리치료 접근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쓰인 과제인 자기 측면 검사를 실시해서, 구획화 지표를 얻은 다음, 자기 구조도를 제시하면서 치료적인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 내현형 자기애에서는 부정 구획 내부의 파급을 멈추고, 긍정적 상쇄 및 중립화 효과를 소환하기 위한 개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될 때, 이를 완화시켜줄 긍정적 측면을 발굴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순수 부정 구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기능적 핵심 신념(Beck, 1995)이나 초기 부적응 도식(Young, Klosko, & Weishaar, 2003; 예: “나는 본질적으로 무능하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대안적인 신념(예: “나는 잘난 면과 못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을 만들고 재구성 작업을 하는 것이 탈구획화와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자기의 구조적 지표에서 누가 가장 취약한가?

본 연구는 자기애의 노골성에 따라 내현형과 외현형을 나누고, 이들의 특성을 정상 통제 집단과 비교하였다. 요약하면, 자기의 구조 지표에서 세 집단 중 가장 취약한 것은 내현형 자기애 집단이다. 자신의 용대함을 가정하나 이를 내색하지 않는 집단이 자기 구조 지표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에 대한 회복 요인인 긍정 자기 복잡성은 낮고, 반대로 스트레스의 영향을 악화시키는 부

정 자기 복잡성은 높았으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분리되어 있으며 부정적 측면이 자신의 주된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부풀린 자기애를 간직하되 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내적 통합성이 낮아서, 내적 모순과 부조화를 느끼고 있었다.

반면, 외현형 자기애 집단은 구조적 지표에 있어서는 정상 통제 집단과 대동소이했다. 여러 지표 중 긍정 중심 구획화가 낮다는 것에서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의 구조 진단에서는 외현형 자기애 집단이 내현형에 비해 적응적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와 일치하게,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따른 정서적 특징을 다룬 연구에서도 외현형 자기애와 정상 통제 집단이 우울, 적대감, 분노 등에서 다르지 않음이 보고된 바 있다(이준득, 2005). 자기애의 유형을 발달적 스펙트럼 상에서 검토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가 발달적으로 더 미숙하고 병리적으로 더 심각한 형태이며, 이에 반해 외현형은 더 적응적 변형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자기애 하위 유형의 방어 성숙도와 대처 효율성을 비교하는 향후 연구가 이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현형의 적응적 잠재력은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먼저 본 연구의 외현형 자기애 집단이 비임상 표집이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처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이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우울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만큼 부적응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서 기복과 대인 관계의 문제가 생길텐데, 이는 임상적 자기애의 경우에 국한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자

기측면검사에서 사용된 자기 기술용 속성 형용사(40개)들이 자기애 성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속성 형용사로는 “뚝뚝하다.”, “자신감 있다.”, “끈기있다.” 등 비교적 온건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데, 외현형 자기애의 과시적이고 웅대한 자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탁월하다.”, “자신만만하다”, “끈기 그 자체이다.” 등 좀더 극단화된 자기 기술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자기애의 내적 어휘들에 부합하는 자기 속성을 사용한다면 외현형 자기애와 정상 통제 집단의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어떤 구조적 지표가 자기애의 하위 구분에 민감한가?

자기 구조의 특성을 자기애의 하위 구분에 사용할 때, 효과적인 것은 전반적인 지표보다는 유인가를 고려한 지표였다. 즉, 전반적인 자기 복잡성 지표는 자기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자기애의 자기복잡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과 일치한다. 그러나 유인가를 고려하자, 내현형과 외현형 자기애는 분명한 구분이 이뤄졌다.

한편, 구획화 지표에서는 자기애 집단보다는 오히려 정상 통제 집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자기애의 자기 구조가 표면적 웅대함과 심층적 취약함의 이중 구성으로 이뤄진다는 이론들은 자기애 집단의 구획화를 시사하므로,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인가와 관련된 차별적 중요성을 고려하자, 정상 통제 집단의 구조적 분리는 긍정 중심 구획화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 복잡

성과 구획화와 같은 구조적 지표를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적용할 때는 전반적인 지표보다는 유인가를 고려한 긍정 및 부정 구조 지표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더 정밀한 묘사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지표로서 자기복잡성과 자기 구획화를 채용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대안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기 개념 분화(self concept differentiation; 이하 SCD)’ 지표인데 (Donahue, Robins, Robert, & John, 1993; Lutz, & Ross, 2003)이다. 이는 자기 개념이 갈라지고 파편화된 정도(divided self and fragmentation), 즉 자기 개념의 통합이 빈약한 정도를 측정한다. SCD는 정신병리 측정치와는 정적 상관, 건강한 적응 측정치와는 부적 상관이 발견되어서, 자기애의 하위유형에 따른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Rafaeli-Mor(Rafaeli- Mor et al., 1999; Rafaeli-Mor & Steinberg, 2002)는 자기복잡성의 대안적인 측정치로서 ‘측면의 수’와 ‘측면간 중복 정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즉, 자기 측면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원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에 의해 영향받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며, 중복의 정도가 낮을수록 한곳에서 발원한 파장이 인접한 측면으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자기 복잡성을 요소별로 나누어 측정하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

#### 향후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하위분류하기 위해 NPDS와 내현형 자기애를 탐지하기 위한 CNS의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하위분류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고안한 자기애

의 주관적 분류를 준거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척도를 결합해 사용했다는 것은 곧 자기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단일 척도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내현형 자기애의 경우는 NPDS와 CNS145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정신병리적 취약성에서 이중 부담을 지는 셈이다. 즉, 내현형 자기애 집단은 NPDS가 측정하는 취약성과 CNS145가 측정하는 취약성을 모두 지니는 표집이므로, 이들의 부적응은 예견가능하다는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예컨대, 한 집단은 우울하기만 한 집단, 다른 집단은 우울하고 동시에 불안한 집단을 선별하였다면, 후자가 이중 병리를 가지므로 더 부적응적일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대다수의 연구들이 NPDS와 CNS의 조합으로 자기애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지만(김방글, 오수성, 2009; 박세란, 2004; 이준득, 2005),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애를 하위 구분할 수 있는 단일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자기애의 하위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현형 자기애 척도가 아니라, 자기애를 총량을 측정하되 그 표현방식이 내현적인지 외현적인지를 구분해 주는 척도이다. 자기애 및 그 구분에 관한 단일 종합 척도를 사용한다면, 내현형 자기애 집단의 구조적 부실이 정신병리의 이중 부담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문제로서, 자기애의 하위유형 분류에는 많은 조사 대상들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497명의 대학생들 중 내현형 자기애 집단으로 24명을, 외현형 자기애 집단으로 23명을 선별하였는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9.5%에 해당한다. 두 가지 선별 척도를 교차할 경우 잠재적인 자료의 손실률이

높아서, 많은 피험자들을 사용한 검증력 높은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관 연구를 시도해볼만하다. 자기애에 따라 집단 선별을 하는 대신에 대규모 표집에 자기 측면 검사를 실시해서 구조적 지표를 획득하고, 이것이 전체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등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 조사해 볼만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애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고, 그 적응적 여파로 어떠한 인지적, 정서적, 대인관계적 부적응이 유발되는지를 포괄하지는 못했다. 자기애의 부정적인 여파로는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불안정성, 공감 능력의 부족, 그리고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애 집단이 보이는 자기의 구조적 취약성이 실제 생활에서의 부적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자기애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고양하는 자아 동조적 방어이므로, 대인 관계 맥락에서 그 역기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의 경우 횡단적 접근에서는 높은 자존감과 낮은 정서적 고통을 보여 적응적으로 비춰지나, 종단적 측면에서는 불안정성과 역기능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애의 구체화된 자기구조가 시간에 걸친 자존감 및 정서의 불안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도 기대해 볼 만하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0.
- 김방글, 오수성 (2009). 실패경험이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1069-1081.
- 김윤주, 한성열 (1993).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 28-36.
- 김윤희 (2001).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자기개념과 자기복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세란 (2004).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현a (2005). 섭식문제가 있는 여대생의 완벽주의 패턴과 자기 지식 구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현b (2005). 자기 복잡성과 자기 개념 명료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준득 (2005).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분노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93-216.
- 한수정 (1999). 자기애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인지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훈 (2007). 정신병리에서 이분법적 사고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cs and beyon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pp.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abbard, G. O. (2000). *Psychodynamic psychiatr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bbard, S. (1992). Narcissism, shame, masochism, and object relations: An exploratory correlational study. *Psychoanalytic Psychology*, 9, 489-508.
- Jordan, A., & Cole, D. A. (1996). Relation of depressive symptoms to the structure of self-knowledge in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30-540.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rnis, M. H., Brockner, J., & Frankel, B. S. (1989). Self-esteem and reactions to failure: The mediating role of overgener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07-714.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inville, P. W. (1985). Self 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 94-120.
- Linville, P. W. (1987). Self 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63-676.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Morgan, H. J., & Janoff-Bulman, R. (1994). Positive and negative self complexity: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traumatic versus nontraumatic life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63-85.
- Rafaeli-Mor, E., & Steinberg, J. (2002).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A review and research syn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 31-58.
- Rafaeli-Mor, E., Gotlib, I. H., & Revelle, W.

- (199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self-complex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341-356.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hodewalt, F., Morf, C.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75-87.
- Robins, R. W.,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62-467.
- Robins, R. W., Tracy, J. L., & Shaver, P. R. (2001). Shamed into self-love: Dynamics, roots, and function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Inquiry*, 12, 230-236.
- Rhodewalt, F., & Regalado, M. (1996). *NPI-defined narcissism and the structure of self*. Unpublished data, University of Utah.
- Rhodewalt, F., Tragakis, M., & Hunh, S. (2001). *Narcissism, social interaction, and self-esteem*.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y of Utah (Morf, C. C. & Rhodewalt, F. 2001에 서 재 인용)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379-391.
- Rosenfeld, H. (1987). *Impasse and interpretation: Therapeutic and anti-therapeutic factors in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psychotic, borderline, and neurotic patient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Showers, C. (1992a). Evaluatively integrative thinking about characteristics of the sel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719-729.
- Showers, C. (1992b). Compartmentaliz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knowledge: Keeping bad apples out of the bun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36-1049.
- Showers, C., & Kevlyn, S. B. (1999). Organization of knowledge about a relationship partner: Implications for liking and lo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958-971.
- Showers, C., & Larson, B. E. (1999). Looking at body image: The organization of self knowledge about physical appearance and its relation to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67, 659-700.
- Showers, C., Abramson, L. Y., & Hogan, M. E. (1998). The dynamic self: How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change with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478-493.
- Showers, C., & Kling, K. C. (1996). Organization of self-knowledge: Implications for recovery from sa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578-59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oolfolk, R. L., Novalany, J., Gara, M. A., & Allen, L. A. (1995). Self-complexity, self-evaluation, and depression: An examination of

form and content within the self-schem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08-1120.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원고접수일자 : 2010. 7. 9.

게재확정일자 : 2010. 8. 18.



## The self structure of narcissistic persons: approach based upon the overt vs covert subtype

Seong-Hoon Hw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univeristy

Narcissism, which is defined as overestimation of one's own importance can be classified into expressive type(overt narcissism; ON) and hidden type(covert narcissism; CN) according to the way it is revealed. This research tried to prove that these subtypes can determine the inner self structure. Among 497 off-line and on-line university students, ON group(24 students), CN group(23 students) and normal control group(26 student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and covert narcissism scale. They were required to classify their own characteristics in self-aspect test, which approached their inner structure by producing self complexity index( $H$ ), compartmentalization index( $\phi$ ), subjective integration rating(the evaluation of the harmony and order among self aspects), etc.. While ON was related to greater positive self complexity, a resilience factor in emotional distress, CN showed a higher degree of negative self complexity, a aggravation factor in emotional discomfort. In other words, ON differentiated their own positive aspects and attributes diversely in organizing self structure, which reflects the grandiosity of self image they apparently present. On the other hand, covert narcissists represent their negative aspects and attributes as complex structures, which means their self image is vulnerable. The proportion of negative compartmentalization was higher in CN group than in ON and control group. Covert narcissists' self structure separated their own positiveness and negativeness, accepting negativeness as more important and substantial aspect. Furthermore, CN rated their subjective self-integration lower than ON and others. They felt their self aspects were not harmonious and orderly. In conclusion, covert narcissists are most vulnerable in diagnostic indexes of self structure. Finally, som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narcissistic personality, covert narcissism, overt narcissism, self complexity, compartmentalization